

가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기초 자료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성체 성혈 대축일과 성체성사

- 개신교회: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
- 가톨릭교회: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온전히 변화됨

=> 우리는 미사를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매일 나누어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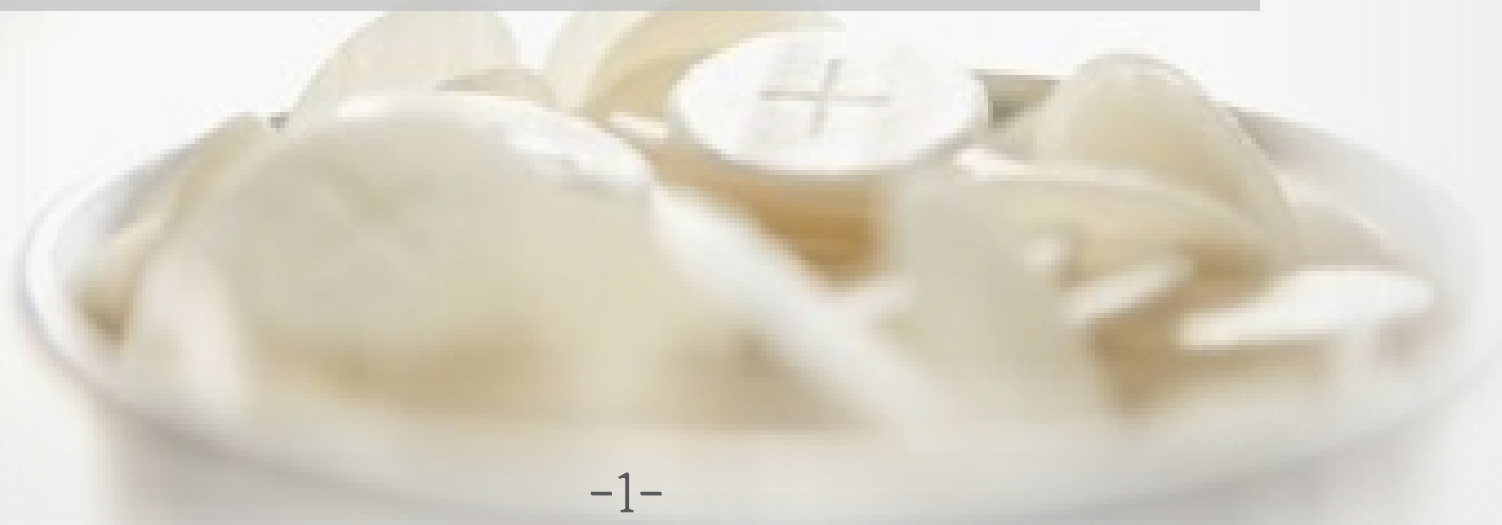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식탁 공동체

✓ 빵: **생명** / 포도주: **기쁨** 상징

=>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같은 몸과 피를 나누어 마시며
온전히 일치하는 하나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신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1코린 10,17)

주님의 몸과 피를 정성껏 먹고 마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깊은 친교와 기쁨을 나누며
생명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다.

